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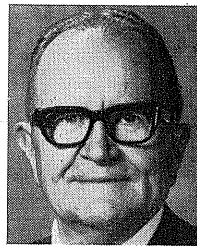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1972

# 영감의 메시지

데오도르 엘 버튼

십이사도 보조



● 나는 오늘날 세계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필요 중의 하나가 단결을 위한 필요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평화로 이끌려는 의로운 길을 택한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의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이유의 한 가지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나는 이러한 이기심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사실상 합당하게 인도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커다란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 속에는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 지녀야 할 어느 정도의 신념이나 자존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제 자아가 이기심으로 발전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인간이 주재념고 자신의 중요함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될 때 자아는 악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독점하려 하며 남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앞지르고 앞서려고만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스런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정신은 이기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화와 분열이 가득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방법에 이끌려서는 안되며 이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2년 1월 1일

통권 제78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50원

1년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 제 8 권 제 1 호 순 서 1972년 1월호

■ 권두언 : "성공적인" 죄인들 해롤드 비이 리 .....	1
선교사로서의 주일학교 고든 비이 헝크리 .....	3
사실을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 로렌스 아아르 프레이크 .....	6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보이드 케이 패커 .....	9
방황자를 찾아서 엔 엘돈 태너 .....	13
인간은 남의 빛으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헨리 데이 테일러 .....	16
정직과 완전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	18
어린 시절의 추억 스펜서 더블류 킴볼 .....	21
특별한 신발 .....	23
놀웨이에서 온 거스틴 .....	25
상 올리브 더블류 버트 .....	26
엘리아와, 흥해와, 여러분 존 에이치 반덴버그 .....	29
선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폴 에이치 던 장로와의 대화 .....	31
정의를 사랑함 말빈 제이 애쉬튼 .....	35
결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	39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리차드 엘 이반스 .....	43
깜짝 놀랄 저녁 식탁 매리 엘렌 폴리 .....	46
선교부장 메시지 : 부라운 .....	47
내외 소식 .....	48

**표지 설명 :**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국의 만체스타에서 최초의 지역 대회가 열렸다. 성도의 첫 표지에 영국에서의 역사적인 장소를 실린 것은 그러한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앞면은 프레스톤 근처에 있는 리블 강인데 이곳은 최초의 침례 의식이 행해진 곳이다. 뒷면은 위에서 차례로 1837년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프레스톤의 시장 근처로 북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이르는 길이다. 맨 아래의 사진은 영국 요크셔에 있는 바트리의 브링햄 항구로서 메이플라워워호가 출항한 곳이다.



## 성공적인 죄인들

해럴드 비이 리

대관장 제1보좌

● 세상에는 실제로 성공적인 죄인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자립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항상 성실한 노력이나 합법적인 사업으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치하고 안일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는 책임있는 교회 역원으로서 어려운 교회 문제를 걱정하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에 골프를 치며 야구 구경을 하며 그의 다른 경기를 즐깁니다. 그는 많은 돈을 써가며 유흥장을 찾아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적어도 그 돈의 일부는 그가 십일조나 교회의 건축 기금이나 가난한 자의 복지 기금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사귀고 있는 세상적인 친구 때문에 그는 거리낌없이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무리에 이끌려 부도덕한 일에 어울리는데 그러한 행동은 교회의 표준으로 볼 때 극히 지

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그의 집에 살고 있으며 그가 자기 아내라고 부르는 여인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첫번째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창 1:28 참조) 그녀는 자녀들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란 그녀의 생활이나 특별한 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은 교회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종교나 교회란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의 일에는 등한하게 되고 교회의 계명에 어긋나는 술이나 담배에 빠지고 카드놀이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최신 유행 복장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은 물론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가정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인에 의해서 이룩된 외형적인 성공을 볼 때 전체적인 배경이나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훌륭한 길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에서 활동적인 사람의 생활이 끊임없는 제약과 금지와 시간, 재능, 금전을 요하는 봉사과 회생과, 교회의 표준 이하의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양심의 불안 등으로 편할 날이 없다고 비교해서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또한 다른 곳에 그러한 정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며 그러한 종교는 더 훌륭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택할 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나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높여 여러분이 사물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는 만일 그 나무가 비옥하고 양호한 토양에 심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손질이나 재배나 관개 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덕과 순결과 정직과 절제와 완전과 충성의 탐스러운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애와 사명에 진실함을 증거하는 확고한 간증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로운자가 되려면 매일 죄를 회개하므로써 우리 인격의 나쁜 가지를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나 잘못이 우리의 기호에 맞도록 계획을 짰 장본인은 누구 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 창세 이전 영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무시퍼는 아무 노력이나 선택도 없이 모든 인류를 구하겠다는 계획을 제의했으며 이러한 봉사의 대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여호와의 계획은 모든 자에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고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영예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왜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유혹하게 하며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경험을 얻으며 주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 성공적인 죄인들

를 위협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악한 것]이나 저것[선한 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서서 2 : 16.)

잠시동안 그것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선한 것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의지나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특권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과 경험과 권능면에서 성장할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진리와 의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앨마서 42 : 20 참조.)

· 선악간의 이러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회개라고 불리우는 인간 정신의 값비싼 정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나는 간단하나 기본적인 진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일 여러분이 온갖 정성을 다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아무리 교활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러한 계명의 하나를 어김으로써 여러분은 사탄의 영역에 첫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 즉 주님의 고통스런 희생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고 결국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죄에 빠지고 모두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셨으니 이것은 분명한 회개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를 진 사람은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교성 58 : 43) 그러한 회개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장 큰 해를 입은 사람에게 첫째로 행해져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은 증거가 이미 알려진 후에 단지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공개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불명예와 겸손한 태도와 기꺼이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동이 은밀히 행해졌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면 여러분의 고백도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은밀히 이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마 6 : 4 참조)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위나 교회에서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주님께서 모든 가축을 지키는 목자로서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임명하신 감독에게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 (교성 58 : 17 참조.)

죄를 지었으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교회에서 합당한 장로의 손을 통해 죄의 사유함을 (눅 3 : 3 참조) 위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한 다음 죄를 지은 자는 훌륭한 행동을 하므로써 그의 회개의

결실을 (눅 3 : 8 참조)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은 악함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자기가 저지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만일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니회의 죄가 주홍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 : 18).

그러나 경전의 참 뜻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은 죄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해도 회개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치 그가 의롭고 순결한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사업에 기여해서 저지른 죄는 그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셔서 용서하시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러 영원한 목표포 향한 진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분의 죄의 결과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죄인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되며 (계 20 : 12 참조) 육신의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지은 죄의 짐이 성도의 것보다 가볍겠습니까?

항상 최선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도록 축복과 인도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선교사로서의 주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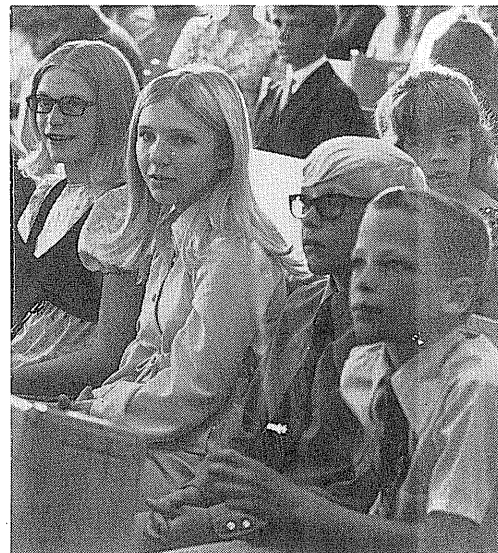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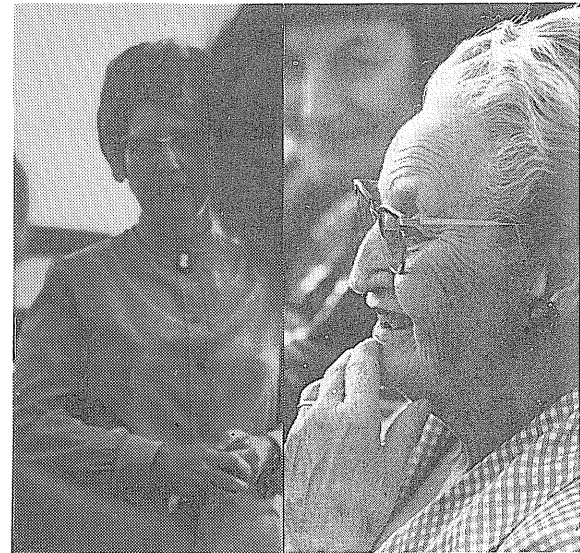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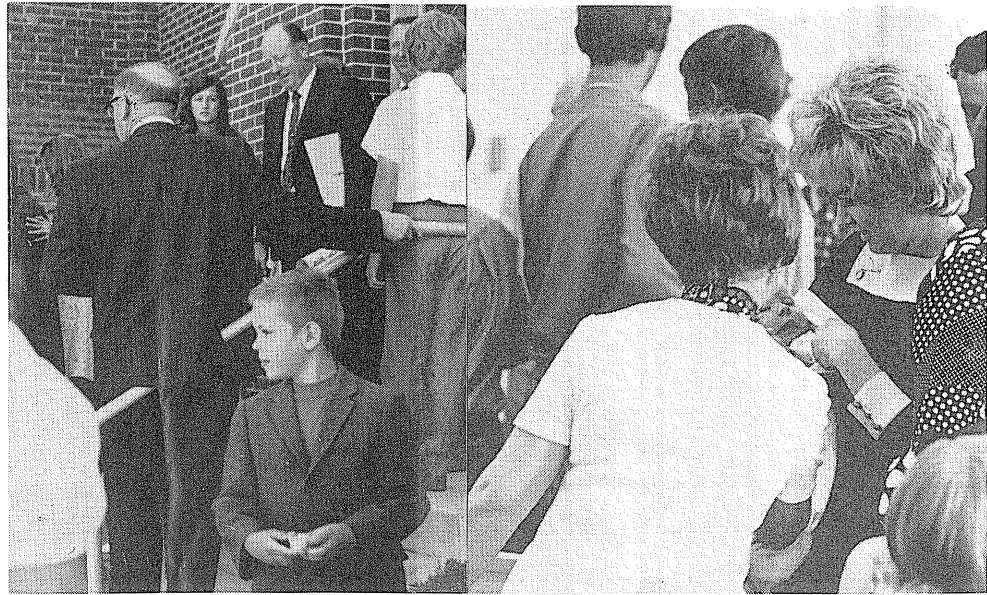
고든 비이 힝클리

십이사도 정원회

●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 가운데에서 주일학교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전체 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과와 내용은 복음의 전반에 걸치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다른 어떤 보조 조직보다도 출석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서도 가장 좋은 날에 갖고 하루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에 갖게 됩니다. 주일학교는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무수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주일학교가 강해야 하며 교회 회원들간에 복음의 지식이 증진 되려면 먼저 주일학교가 복음의 지식을 훌륭히 닦아야 하며 성도의 경건한 자세가 확립되려면 주일학교가 경건해야 하니 결국 주일학교는 보다 더 효율적인 보조 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퍼져있는 수백만의 생활 속에 영원한 복음의 빛을 전해 줄 수 있는 이 조직이야말로 놀랄만한 조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회도 많고 해야 할 목표도 많습니다.

어느날 어떤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선교용 소책자를 원했는데 그의 손에는 전쟁터에 가 있는 그의 아들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친

이 기사는 1971년 4월 쉐트 레이크에서 있었던 주일학교 대회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 선교사로서의 주일학교

구를 사귀었어요. 저는 서너명이 갖고 있는 소규모의 주일학교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며 저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주일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뿐이었어요. 저에게 책자를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란 다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수많은 주위의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리처드 엠 닉슨은 일년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은 그가 졸업을 할 때까지 11,000시간을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15,000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덧붙여 나는 그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는 데는 500시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인 이러한 어려운 장애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일학교 역원이나 교사의 마음 속에는 좀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책상 위 유리 밑에 브라우닝의 다음과 같은 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의 손이 미치는 범위를 능가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속하나, 오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속할 수 있으나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좀더 우리의 능력을 펼쳐야 합니다.

나는 몇년 전 어느 떨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스테이크 회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18개월 사이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 중에는 단정한 용모를 지닌 젊은 신사와 그의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형제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약 10분 정도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와 현재 형제님이 느끼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막 근처에 세워지는 큰 공장 기술자로 일하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면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때 물몬과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에게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몬 교회에 나가자고 결정을 보았고 막연히 어느 주일날 아침 이 건물을 찾아왔으며 마루의 뒷 구석문을 통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저도 ‘○○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에 뵈 적이 없는데요. 이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와드에서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우리가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들어 오십시오. 제가 옆에 앉아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분반 시간이 되자 그는 아이들을 유년반에 데려가서 교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복음 교리반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뒷 줄에 앉았습니다.

‘주일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오후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댁에 들러서 댁의 가족을 모시고 오겠

습니다’라고 그는 제의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집회에 참석했고 그와 그의 부인을 다시 만났으며 매우 편안하고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주 후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연단에 섰을 때 그의 눈은 젖었고 뺨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는 “한달 전에 우리는 스폴트 레이크에 갔었으며 신전에도 들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뜻깊은 것이었는지를 말할 수 없군요”라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처음 와서 교회를 알게 되었으며 스테이크 회회가 있었던 일요일 오후에 어린 소년으로 참석했던 그 사람의 아들은 현재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일학교 역원이 다시 된다면 나는 나의 주일학교가 경건한 분위기로 넘치고, 보다 훌륭히 감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하며 마음의 자세를 승화하는 음악을 마련해서 주일날 오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분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다시 오고 싶은 욕망을 갖게끔 전에 없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의 역원들이나 교사들에게 선교사 정신을 배양시키며 그들 속에 가려있는 비활동 회원을 활동적인 회원으로 이끄는 열성적인 욕망을 키우겠습니다. 나는 또한 교사들이 와드 집행 서기에게 비활동 회원 담당 가정 복음 교사의 이름을 알고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가정 복음 교사로 하여금 각 개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할 것이며 만일

1. 브라우닝, 로버트: 영국 시인, 1812~1889.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들을 도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그들 속에 가려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출석해 줄 것을 간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각자가 목표로 삼을만한 기회를 발견하도록 지혜를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이란 간청한다고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며 어떤 목표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반원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을 주일학교에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일년 전에 남 아메리카의 한 지부 간증 모임에서 한 자매의 간증에 큰 감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약 삼개월 전에 교회에 들어 온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열성적이었고 마치 사울이 가졌던 종류의 경험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고 행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선교부장을 만나 그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달 전에 교회 회원이 된 이후 그녀는 삼백명의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했으며 삼개월 동안 그들 중의 예수 일꾼 명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주일학교나 성찬식이나 상향회에 참석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만일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다시 된다면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해 가도록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감과 지도와 도움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수법을 향상하도록 노력하며 주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원이 교실에 들어 왔을 때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경전의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성 112:10) 둘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한 위대한 제명이자 약속인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교성 88:78)

교회의 선교부 산하에는 1,900여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몇 곳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주일학교로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시초로부터 강한 지부가 생기고 커다란 지역이 생기고 규모가 크고 결실을 맺는 선교부와 번창하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새싹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작은 지부의 주일학교는 교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복음의 구도자를 데려갈 수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러 분이 이러한 선교 과정의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찰스 에이 칼리스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남부 제주의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이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젊은 선교사가 찾아와 그의 마지막 보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부장님 저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낭비하고 이제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을 침례주었습니다. 저는 신발조차 신지 않은 사람하나를 조그만 주일학교가 있는 뒷 숲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칼리스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좌절감을 주시해서 살렸습니다. 내가 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가 구두를 신고 셔츠와 타이를 매고 있었으며 작은 지부 주일학교의 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부 주일학교 회장이 되었으며 집사, 교사, 제사의 신권과 장로의 신권도 받았습니 다. 그는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작은 농장을 떠났으며 땅을 구해서 이를 개간하고 비옥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방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농장을 팔고 아이다호로 이사를 했고 이곳에 있는 스테이크 리버 계곡 근처에서 훌륭한 농장을 개간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라서 선교사가 되었으며 현재 그의 손자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리스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지난 주까지 아이다호에서 개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한 젊은이가 행한 한 침례의 결과로 천 백명 이상이 교회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성 64:33-34)

그러므로 이 위대한 조직의 목표는 재앙과 불행과 후회의 그늘속에 있는 자들을 구하며 현재 구원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겨다 주는 교회로 인도하는 효율적이며 설득력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

● 지난 세기 말엽 영국의 조그만 시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두 소년이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이 달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타운스리는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속 극단을 따라 갔고 로버트 웨스트필드는 신학을 공부하려 런던에 갔습니다.

몇년 후에 런던의 큰 교회 목사가 된 웨스트필드는 우연히 런던 극장에서 공연될 연극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극의 감독이

프레이크, 로렌스 : 콰베타학 캠퍼스에 인접해 있는 종교 학원의 책임자. 사스케하나 스테이크의 이타카(뉴욕)와드 회원이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토마스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공연을 본 목사는 만원의 청중에게 끼친 이 연극의 효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로버트는 그의 옛 친구를 기쁘게 만났으며 다음날 아침 그의 교회로 올 것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설교가 지금까지 교구민들을 감동시킨 것 이상으로 그 연극이 청중을 감동시켰다고 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회의 예배에서 청중의 무반응을 목격한 토마스는 전날 밤의 연극과 오늘 아침 설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극에서 우리는 상상적인 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자네는 설교에서 실제의 일을 상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교사로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는 복음의 진실성을 학생들에게 진실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때 우리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생활에 보다 효과적이

# 사실을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

로렌스 아아르 프레이크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린 아이의 신앙과 순결한 마음을 통하여 복음의 보이지 않는 진실성이 너무 실재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살짜리 소녀가 혼자 놀고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는 항상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그녀를 굽어 살펴 보신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소녀는 그녀의 인형을 높이 쳐들고는 “예수님은 저기 계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그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신앙을 지속하도록 돕지 못한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린 시절의 가치 있는 확실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 와드에 속한 한 감독이 비활동적인 대학원생을 방문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감독은 이 젊은이가 전에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비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 왔을 때 저는 커다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예수께서는 정말로 제가 믿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노래에 비유한 이 젊은이의 말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간증과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유년 주일학교 이래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십대의 소년이었을 때 헌신적인 교사가, 어린 시절의 노래가 가르쳐 준 개념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잘 이끌



어 주었다면 그가 지금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 대학원생보다 더 나이를 먹지 않은 한 젊은이는 주님을 믿는 신앙과 복음의 성약에 대한 실천이 결코 상상적인 것이 아님을 훌륭한 모범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일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의 악한 음모를 단호히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유혹에 대한 그의 용감한 대답은 주님의 성약이 그에게 얼마나 진지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약의 진실성을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성약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복음 교육의 진실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것의 실천을 통해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일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개척자들의 쓰라린 고통은 교회사에 실제 한 면이지만 많은 문화적인 혜택으로 축복을 받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한 교사는 그의 반원들이 이러한 고통의 실제성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강력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개척자들의 쓰라린 고난과 역경을 몇분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1847년과 1869년 사이에 광야에서 행해진 육천회가 넘는 슬프고도 끊임없던 장례식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맛보기 위해 반원들은 외투를 벗고 밖으로 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미리 준비해 놓은 돌무더기를 둘러 앉았습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방금 막 매장된 아기 부모의 입장이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매장

된 아기를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덤 위에 돌을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오기 전에 몇분간 추위 속에서 조용히 서서 명상에 잠겼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교사는 각 학생들이 종이 위에 지금 막 경험한 생각이나 감정을 써보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란 찬송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험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그들 조상의 고난에 대해 몇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것보다 불과 몇분으로도 깊은 느낌을 맛보게 되며 이러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연사가 반을 방문하게 하므로써 학생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금주 협회 회원과 한 시간의 토론을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나 약물에 빠졌던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의 가치를 절감하게 해줍니다. 많은 주에서 형무소의 간수들은 죄인들을 반에 데려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불행한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민감하고 창조적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사실을 허구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낡은 기술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라도 우리는 사실의 실제성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생애를 공부한 다음 그의 이름, 출생일, 장소 및 사건 등에 관한 실제의 시험을 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보라고 부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언자 요셉과 함께 15분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와 무엇에

관해 토론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들은 책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나 그림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제 인물로서 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관한 공과도 학생들에게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이나 신전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를 낙담시키는 사탄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므로써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복음의 교사로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이상을 사용하므로써 교수법을 향상할 수 있으며 사실의 실제성을 학생들이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나 끊임없는 계시는 예수와 그의 복음의 실제성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며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1964~1965년 사이에 뉴욕 시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와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로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뉴욕 스테이크의 고 지이 스텐리 맥알리스터 부장은 바티칸 관 책임자인 카톨릭 신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기 자기 교회가 전 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던 중 그들은 모두가 인상적인 예수의 석상을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관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전시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팔에 안긴 생명없는 구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관은 도르발드센이 조각한 그리스도의 상을 전시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부활된 구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석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카톨릭 신부는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는 살아있는 구세주가 있군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구세주의 실제성을 가르치며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

#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보이드 케이 파커

십이사도 정원회

●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여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은 작년 오늘 엄숙한 집회에서였는데 이와같은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행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 발표되는 나의 이름을 들었던 것이 지난 해 사월 아침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부름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나도 의아해 했지만 여러분께서도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합당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때때로 우연인 것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생활을 위해 인도받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항상 끊임없고 조용하고 여유있는 느낌을 견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위대한 특권이나 특별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지난 사월의 모임이 있기 몇 주 전 금요일 오후에 나는 주말 대회의 과제를 생각하면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나는 2층으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나는 그곳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 분이 복도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서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그곳에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에 가까운 성령의 달콤한 목소리는 순수한 예지와 같았으니 이러한 것들은 나로 하여금 이 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말일성도에게 설명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증거는

##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이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회원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대관장에 관해서만 아니라 그의 보좌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에는 와사치 산맥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돌로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봉우리는 지도상에 윌라드 봉우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그 봉우리를 “대관장단 봉우리”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윌라드 봉우리에 가서서 동쪽을 향해 위쪽으로 살펴보시면 “대관장단 봉우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관장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봉우리처럼 대관장단 역시 하늘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제섭니다.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그러한 높은 지도자의 부름이 쓸쓸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부름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명의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지난 해에 저는 가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그러한 질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 호기심에 차고 무책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나는 결코 그러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문제는 너무 성스럽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묻는 데는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참으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정원회에 속한 나의 친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쉽사리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전에서는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됩니다. 또 성스러운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전 밖에서는 그것에 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가득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

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되지 않지만 깊은 존경심으로 마음 속에서 간직되고 보호되고 존중됩니다. 나는 예언자 엘마가 말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에서, 모두 그 신비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저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밖에 알아 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엘마서 12:9~10)

와드나 지부의 회원이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예수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은 사람이 많으나, 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왜 그것은 좀더 평이한 말로 설명될 수 없나?” “좀더 분명하고 보다 잘 설명될 수는 없을까?” “사도들이 더 잘 말할 수는 없을까?”

신전에서 있었던 성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경험이며 우리가 그것을 말로써 설명하게 된다면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역시 나이 어린 초등협회사 주일학교 어린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나 어린 아이들의 간증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엘 32:23)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고 극적이며 남과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간증을 찾습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흡사합니다. 처음부터 남

만주의자나 시인이거나 사랑에 빠진 한 쌍은 그들의 사랑을 보다 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용사나 비유어나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힘있는 선언이란 단순한 세 마디의 말인 것입니다. 진실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간단한 간증은 충분한데 그것은 증거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힘은 전기처럼 실제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상을 보내며 공중으로 소리를 보내 이를 안테나가 받고 다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해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대화도 수백만 배 이상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것과 비슷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증거는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순수한 예지가 흐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암시없이 결코 대답될 수 없거나 험사리 취급될 수 없는 질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남에게 해본 적이 없으나 대답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 질문되었을 때 대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스러운 때에 성신의 암시로 대답되었으니 즉 “성신이 증언하시느니”(교성 1:39)

나는 교회의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경험으로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성스러운, 예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셔도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힘을 지닌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니파이이서 33:1)

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성스러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지녀왔으며 겸손

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증거란, 표적만을 추구해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과 기도와 활동과 시험과 순종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고 그를 따르므로써 오는 첫입찰 지 메저<sup>1</sup>는 일단의 선교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빙판의 눈 위에 세워는 장대를 보라고 몸짓을 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기에 신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마치 우리와 같은 평범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위치는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길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실종을 하게 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sup>2</sup>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표적을 보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증거란 주님의 종을 지지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찌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성스러운 사도의 직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결여하고 있는 자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나의 노력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골몰히 생각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된 유일한 자격이라면 내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정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의 복음을 가르쳤고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에 대해 저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 독일 태생 교육자. 초대 브리검 영 대학 총장  
2. 엘자 피이 버튼, 칼 지 메저, 불문 교육자 (메저넷 출판사 1953 22페이지)

●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 형제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에 대해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가, 지도자, 행정가 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만날 때와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즐기며, 여기에 오신 청중 여러분을 직접 보며 오늘 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리 부대관장님께서 17만명이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렇게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들이 우정과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볼 때 나는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껴서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이 모임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와드에는 열 두 살부터 일흔 살까지의 형제가 있으며, 비록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들은 교회의 관심과 형제애와 적극적인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모두 누구나 다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가끔 사소한 일이나 오해가 사람들을 비활동적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했거나 꾸지람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담하고 비활동적인 면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나친 죄의식을 느끼고 그 결과 자기는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가 설 자리는 없고 자기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버린 몸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만일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내 방황하는 아들은 오늘 밤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말이 “왜 나의 형제는 오늘 밤 방황하고 있을까?”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저녁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오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오늘 아침 대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에 응한다면 그들은 결코 방황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소년들은 그들이 취급받는 것이나 무시되는 것이나 스스로 버림 받은 자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양에 대한 비유를 주셨으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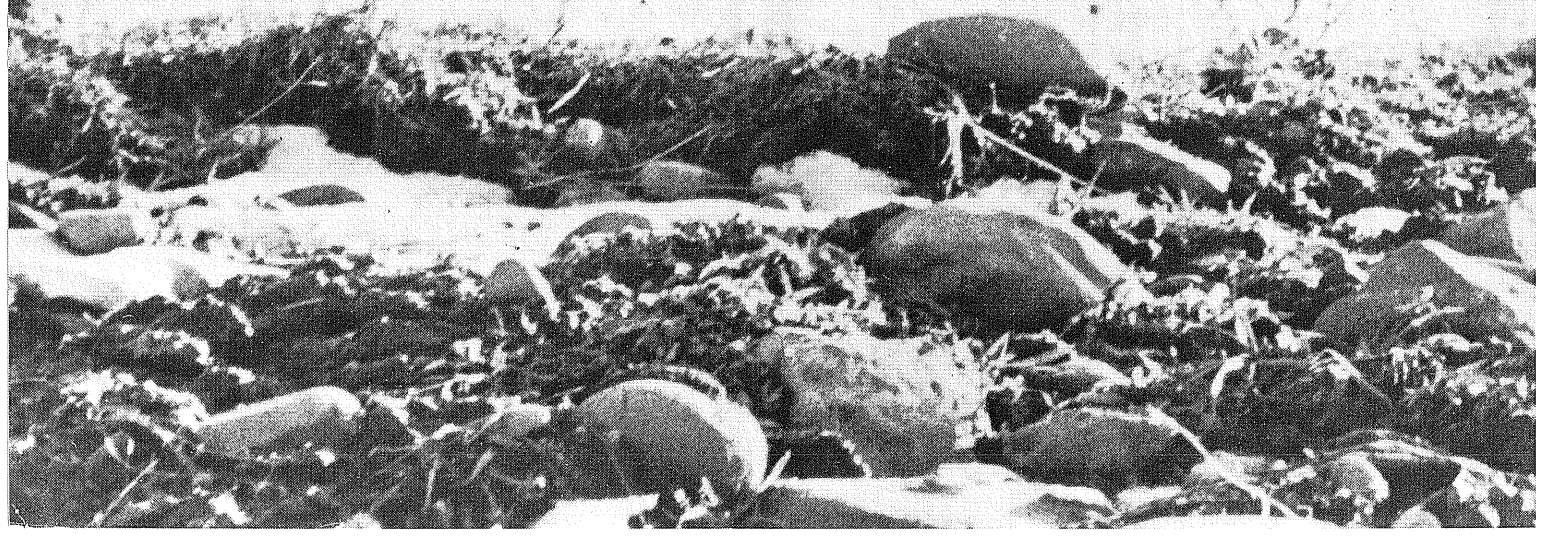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



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모범을 보이십시오. 만일 형제님께서 스테이크 위원회에서 일하신다면 형제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형제님은 활동을 하셔야 하며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 곧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되는 날에도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드레 만에 그는 나를 찾아 왔습니다. 그는 “태너 형제님, 아직까지도 그 일을 저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불렀고 일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형제님이 계시는 동안 만이라도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맡았고 내가 있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서른 살이 훨씬 넘었지만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스테이크 상향회 회장인 아름답고 젊은 자매를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그녀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이 되었고 고등 평의원이 되었고 후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그의 가족이 활동적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서 커다란 만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활동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

리는 활동적이 아닌 소년과 젊은이와 노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그들을 흥미 있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들이 스스로 활동적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알게 해 준다면 그들은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감독 여러분에게 다음 한달동안 젊은이 몇 사람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이끌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목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보좌도 같은 일을 하십시오. 각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도 모두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계획안을 짜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사에게 제공해 주며 참석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모두 맡아 하지만 나는 50%나 60%의 출석율로 만족하고 항상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나는 출석 퍼센트나 통계 자료가 어떻든지 전혀 개의치는 않으나 길을 잃은 소년이나 방황하는 젊은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 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나의 형제님과 특별히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형제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은 양을 찾고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젊은 형제님들께서는 항상 신권을 존중하여 잃은 양이 되지 말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신권을 존중하도록 도와 행복하게 되게 하십시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이며 그의 왕국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동료로 구하도록 가르치고 도우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행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 인간은 남의 빛으로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헨리 디어 테일러

십이사도 보조

● 교회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사람은 여러 형제 자매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을 볼 수 있으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겠다는 여러분의 열성적인 노력에 감명을 받습니다.

이 봉사하려는 욕망은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참된 주님의 사업이라는 강한 확신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간증이라고 불리우며 의로운 행위와 적극적인 행동을 낳아 주는 강력하고도 추진력이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를 보는 사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밑에 깔려있는 강력한 힘은 각 개인의 간증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시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여셨으며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승영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증거는 열심히 추구되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던 히버시 이 킴블은 1856년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많은 시련이 닥

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어떠한 남녀라도 남의 권세로서는 오래 견디지 못할 날이 올 것이며 모든 사람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식을 얻어야 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빛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벡케이 대관장도 젊은이들에게 진리의 지식과 복음의 간증은 그들이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훈을 배워야만 얻을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매일같이 순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구세주의 인도를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권고는 간증이 깨끗한 생활과 기도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나이 어린 요셉 스미스도 깊은 신앙을 갖고 그에게 큰 관심이 되었던 문제의 해결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극적인 경험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옹호자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빛을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에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이까?”





라고 묻자 주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3~5)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성신에 의해 행해진 우리가 받은 이러한 인상은 깊고도 동시에 영원한 것입니다.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일지라도 성신의 간증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만큼 인상을 마음 속에 남기지 않습니다. ……성신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영혼에 끼친 이상이란 시현보다도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화이며 영혼에 찍힌 깊은 도장은 훨씬 지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열심히 구하라[데저렛 출판사, 1970] 213~14페이지.)

이러한 진리는 물몬경의 세 목격자의 경험에 의해 잘 설명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말틴 해리스는 각자 천사를 보았고 물몬경이 번역된 금판을 보고 만져도 보았으며 그 기록이 참되다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후에 모두 불평을 하고 지도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신앙과 배도로써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자국은 결코 씻을 수가 없어 그들 중의 한 명도 자기의 간증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증거는 지금도 물몬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작은 간증은 외적인 표적이나 나타냄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주의 커틀랜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오대 대관장 로렌조 스노우는 1836년에 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선교사의 가르침과 구세주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복음

의 진리를 확신한 후에 그는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은 후 그는 즉시 성신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은 지 이 삼 주일만에 그는, 자기가 아직까지도 진리에 대한 간증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싸여 그는 보던 책을 젖혀 놓고 집을 떠나 들판을 방황했습니다. 어둡 침침한 정신과 말로 표현 못할 암흑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날 무렵 집 근처의 외딴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날 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그를 떠나 버렸고 하늘은 마치 그에게 머리를 누르는 쇠덩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가 가던 은밀한 곳을 찾아가 엄숙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입을 열자마자 나는 바로 머리 위에서 명주 옷의 꾸겨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와 내 온 몸을 완전히 감싸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채우고 나는 그 순간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쇠덩이같은 질은 구름과 암흑이 순식간에 빛과 지식의 환희로 변한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지식과 성신권의 회복과 충만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요소인 성신에 의한 완전한 침례였습니다. 물로써의 침례보다도 나의 전신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완전한 침례였습니다.”(에리자 아아르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의 전기와 가족 기록, 8페이지)라고 스노우 대관장은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노우 형제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확신을 받았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한 간증과 함께 성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한히 가치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신을 통하여 증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그 간증이 살아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간증이 굳건히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얻어진 간증도, 부주의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 잃게 됩니다.

간증이란 음식물로 살이 찌듯이 키워져야 합니다. 리 부대관장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권고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증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영감도 깊어지는 못할 것입니다.”(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1970년 12월 12일)

신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구세주는 그의 교리의 원천에 관해 유대인 교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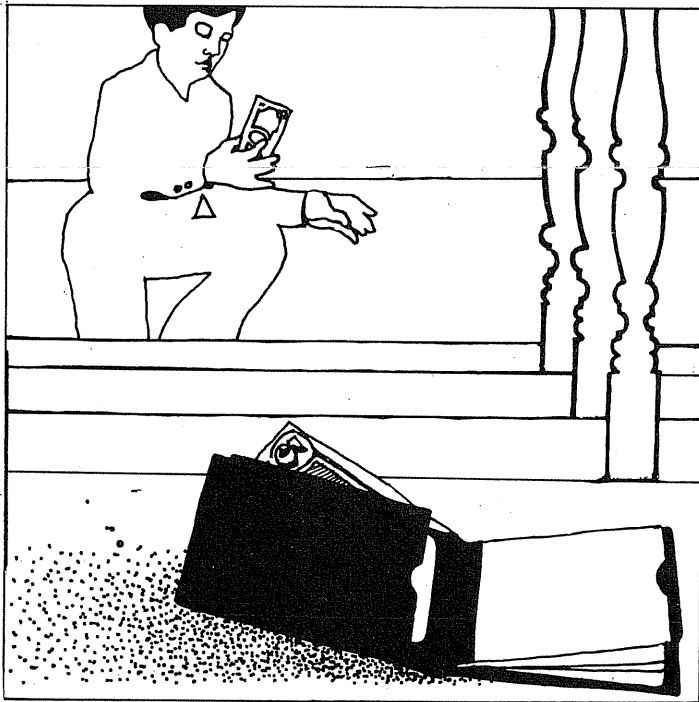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6~17)

주님의 대답은 그 당시의 사람에게서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성신은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정직과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개조 제 13조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이란 완전함, 성실함, 진리에 부합함, 정의롭고 영예롭고 유덕하고 순결한 생활, 도덕적인 인격성, 상호 관계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칙은 참된 말일성도가 갖추어야 할 미덕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에게 알려진 최고의 이념과 원칙과 표준을 대표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나 대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생활에 무한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번즈<sup>1</sup>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직과 완전성을 잃고 미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떤 구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부지런히 이러한 원칙들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옹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인간의 완전한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자유는 희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나 사업계나 경제 단체에서의 부정

부패, 뇌물 회수 등의 기사는 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지위나 능력을 감소시켜 줍니다.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적극적인 도덕 기준이 근거를 두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높은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직이나 존경 명예와 같은 것은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에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카알라일<sup>2</su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악당 한 명이 줄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신랑해 지지 않고 진실로 정직한 사람이 되며, 정직해 지지 않고 참으로 신량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직이란 우선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남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측면에서 사물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함 즉 우리의 거래나 대인 관계에서의 정직함, 교회 회원에게 정직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에 정직함이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모사야 왕의 아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엘 53 : 21)

정직함이나 완전함은 부모의 완전한 유덕과 같이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됩니다. 부모라도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삶을 만들어 주는 모든 미덕과 함께 복음의 일부인 이러한 훌륭한 이념과 원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완전함 속에서 그것은 우리 성격의 일부를 형성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러한 미덕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

1. 번즈, 로버트 : 스코트랜트의 시인 1759~1796

2. 카알라일, 토마스 : 스코트랜트의 수필가이며 역사가, 1795~1881

# 완전함

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잠 20 : 7) 얼마나 참되고 기본적인 말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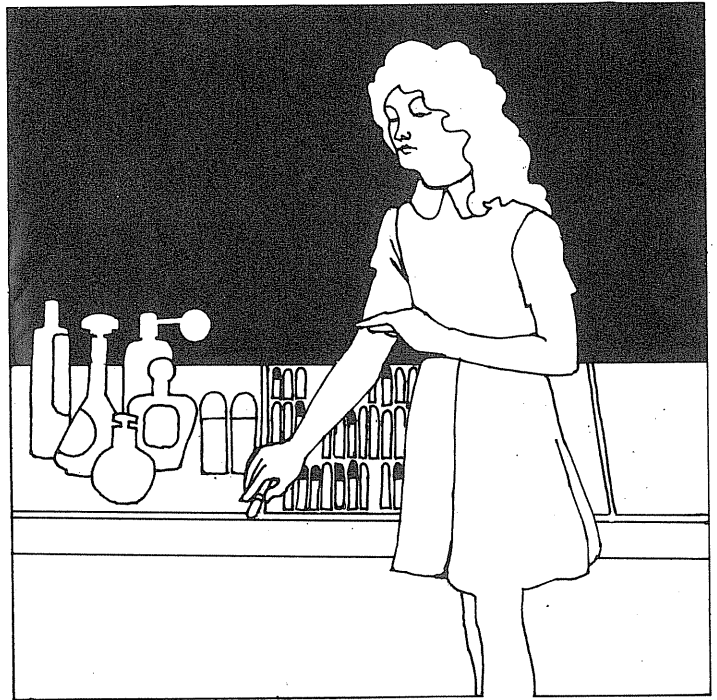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정직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는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본받는다 고 지나치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교리와 성약에서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8)

자녀가 올바르게 살도록 하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되시는 여러분은 서로 진실하며 성실하게 대합니까?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진전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불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좇는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원한 구원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며 매사에 정직하여서 모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최고의 도덕 및 윤리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조지 엘리엇<sup>3</su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유일한 실패판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저질러진 과오나 유리하게 이끌어지는 잘못이나 똑같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사소한 무관심이 심각한 과오나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건을 사실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거스름 돈을 의외로 더 많이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스름을 받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즉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완전한 정직이란 손해를 볼 때나 부당한 이익을 볼 때 모두 똑같이 이를 고쳐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여러분은 고용인을 정직하게 대하십니까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혹은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다면 이것은 같은 몇몇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고용인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십니까? 우리는 점심 시간까지 적당히 보내거나 거짓 구실로 불필요한 심부름을 가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이웃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래했던 이상의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혹은 최소의 노력을 들이고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합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값을 비싸게 부르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용하게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되며 마찬가지로 그가 속인 사람도 그의 부정을 알게 됩니다. 속인다는 것은 부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과 자기 주위의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미칩니다.

여러 교사님들은 공정하게 등급을 결정하십니까? 학생의 성적대로 등급을 결정하십니까? 혹은 개인적인 주관에 이에 작용하십니까? 등급에 대한 속임수나 승자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규칙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정행위이며 피해야 합니다. 승패가 이런 활동이 의도하는 개성이나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기에는 지도력

3. 조지 엘리엇 : 매리 안 이반스의 필명, 영국 소설가 1819~1880

이 결여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규칙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나 규칙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악행은 젊은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이나 불경이나 완전한 도덕성의 결여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은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마음과 인격 속에 미덕을 심어서 그가 영화롭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바를 그들에게 전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정직하게 살며 이중의 표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결혼을 한 한 젊은 자매 교사가 짧은 미니 스커어를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교회의 표준 복장을 입지 않고 그러한 것을 정직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세익스피어는 그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자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헨릿 1막 3장)

삶의 목적은 정직함이나 성실함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신임과 우정을 증진시켜 주며 선의와 지지를 가져다 주어 종종 의외의 만족할만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몇년 전에 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정직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는 주머니용 칼을 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두 명의 동업자가 경영하는 상점에 가서 진열장에 있는 칼을 꺼내 가졌습니다. 이 칼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열장 앞으로 불러가서 칼을 제자리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두 명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삼분지 이의 칼은 그들의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칼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곳에 있는 칼을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의 장사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는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매매할 때도 가격의 고하에 불구하고 정직함을 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공정하다고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돈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잘못을 간과하기 쉬우나 부정직한 죄야 말로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에 동정적이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지만 부정직한 사람과 사귀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 더 신뢰를 손상하고 잃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쥘리 워싱턴은 다음과 같이 정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 어떤 명칭보다도 가장 받고 싶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확고함이나 유덕함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에 관해 실감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나 서기에 의해 재판관을 받기 위해 빌라도 앞에 불러 왔을 때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정직과 완전함을 초월한 그의 명성을 생각해서 그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의 손에 기꺼이 그를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기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계기를 확고한 자세로 지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원칙, 이념, 표준, 성약 등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공정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실천합니다.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함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도와 이익과 축복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러한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어린 시절의 추억

스펜서 더블류 킴블



● 내가 대 여섯 살 적엔 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 달걀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리조나 주의 멧처 남단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동남향의 집으로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집 뒤에는 우물과 펌프와 풍차와 커다란 물 저장 탱크와 연장 창고가 있고 조금 뒤로 떨어진 곳에 아주 많은 장작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폐지우리와 가축우리, 진초더미와 곡식더미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닭이 알을 낳기에 적합한 곳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닭의 둥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쌓이자

나는 훌륭한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녁 해질 무렵 나는 큰 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이곳 저곳을 찾아 달걀을 모아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우리 어린 삼 남매를 데리고 멀리 산책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나는 길을 지나 감독의 집으로 갔는데 화니는 유모차에 타고 엘리스는 그것을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나는 달걀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걸어 가면서 나는 “엄마 왜 우리는 달걀을 감독에게 가져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일조로 바치는 달걀이란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로 감독이 받으신단다. 너는 매일 저녁 달걀을 가져올 때 깃수를 세어보라고 한 말을 기억하겠지. 먼저 한 개는 작은 바구니에 넣고 다음의 아홉 개는 큰 바구니에 넣었지. 큰 바구니의 달걀은 상점에다 팔아서 돈으로 바꾼단다. 그 돈으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구두나 음식이나 옷을 마련하고 작은 바구니의 달걀은 감독에게 가져 간단다.”

나는 처음 나의 인자하신 어머니로부터 십일조의 법을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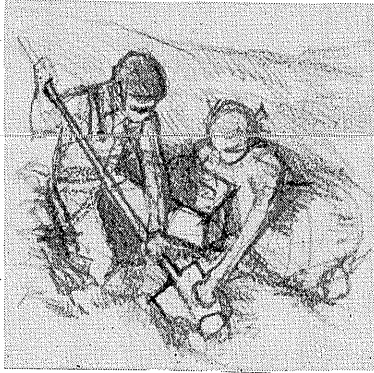


우리 집은 서 쪽으로는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말을 타고 아버지는 땅을 갈았습니다. 그 땅의 일부에는 감자를 심었는데 토질이 비옥해서 수확도 많았습니다. 어느날 아빠는 엘리스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자가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으니 팔고 싶으면 팔도록 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갈퀴리로 감자를 캐내고 엘리스는 이것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상자에 담아 나의 작은 빨간 마차에 싣고 브링커호프 호텔로 끌고 갔습니다.

브링커호프 자매는 매우 친절한 분이었지만 처음으로 감자를 팔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우리가 가져온 감자를 모두

사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감자 값으로 일팔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아빠에게 돈을 보였을 때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래?” 하시며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강냉이나 과자를 사먹기 전에 나누어 갖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십일조는 어떻게 하고?” 하시며 재차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달걀 때문에 배운 교훈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를 귀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수원을 지나고 철망을 기어넘어 10센트를 감독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십일조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과일을 다 재배하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되었지만 많은 일을 해야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복숭아가 크고 탐스럽게 열렸으며 엄마가 겨울에 먹을 즙을 만들어 식품 저장실에 채웠을때 아빠는 남은 것을(조금 팔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열 두 살이고 엘리스는 열 살이었는데 우리는 다시 그전처럼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크고 색이 붉은 복숭아를 따왔습니다. 엘리스는 이를 받아 상자에 담았습니다. 나는 마차에 다 모양있게 정돈해서 야채 시장이 있는 피마에까지 육 마일을 끌고 가서 팔고 곧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동전을 모두 세어보니 오팔



라가 되었습니다. 곧 성탄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나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기쁘게 돈을 책상 위에 놓자 아빠는 또다시 “십일조는 따로 계산해 두었겠지?” 하시면서 우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계획한 성탄 선물을 조금씩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마차에서 땀을 흘리는 나귀를 풀어 풀밭에 데려다 놓고 마차를 마굿간에 넣고 상자를 챙겨놓은 다음 우리는 다시 감독을 향해 과수원과 울타리를 넘어 달려 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고학을 해야 했습니다. 열여섯살 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큰 탄광촌인 아리조나 주의 그로우브에 가서 하루에 두 번씩 젖소의 젖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젖을 짰습니다.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열여덟 마리에서 스물여덟 마리의 젖을 짜고, 지방질을 가려내고, 우유를 병에 담고, 짱통이나 병을 씻고, 가축을 기르며, 거름을 쳐야했습니다. 이 댓가로 나는 식사와 오두막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 썼고 한 달에 47달러 50센트를 급료로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나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를 감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십일조를 낼까 말까?” 하고 망서렸습니다. 나는 급료로 받은 목장의 수표를 바



꾸기 위해 고향에 있는 은행에 보냈고 얼마 후에 영수증과 수표장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수표에다 번호를 기입했고 첫번의 수표를 감독에게 십일조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년이나 소녀나 부모가 십일조를 성실히 바친다면 보다 큰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특별한 신발

데일 킬번 그림



● 존의 구두는 수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안나 윗소와 그의 두 살된 동생인 오스본과 함께 사는 스텐스바켄(스텐스 언덕)을 오르 내리며 노느라고 구두를 다 떨어 뜨렸습니다. 오스본이 태어난 지 두 달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가족은 놀웨이 해안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푸로야 섬에서 육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카시드랄 시라고 알려진

트론드하임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두 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는 가끔 항구 쪽에 있는 아름다운 옛 도시와 해안 쪽으로 향하고 있는 휘어진 협만을 바라다 보곤 하였습니다.

존이 어머니에게 다 떨어진 구두를 보였을 때 어머니는 이웃 사람에게 구두 수선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선공을 알아서 소개를 했

고 곧 한 소년이 그 집을 찾아 왔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는데 구두를 아버지에게 가져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소년은 깨끗이 수선된 존의 구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두 안에는 이상한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존의 아버지는 학교 교사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어린 아들에게 읽는 것을 가르쳤으나 이 책자에는 너무도 낮은 말이 많아서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어머니는 또 다시 수선을 해야 할 다른 구두 한 켤레를 보자기에 싸서 팔에 끼고 삼십 분이 나 걸리는 구두방을 찾아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보통 때보다도 더 침착하신 것같이 여겨졌으며 다음 며칠 동안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셔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다시 고친 구두를 가져 왔을 때 새로운 책자가 구두 속에 또 있었습니다. 존은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몇 시간이나 조심스럽게 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일요일 날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이 두 아들을 부탁하고 구두 수선공의 통나무 집 집회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존의 구두에 책자를 넣은 뜻을 알기 위해 구두 수선공을 처음 찾아 갔을 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 어머니는 몇년이 지난 후 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아들의 구두창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 책자는 물론 선교사의 소책자였습니다. 이 책자로 인하여 존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은 이들을 믿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나의 두 소년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년 후에 이십 명의 다른 놀웨이 성도와 함께 윗소 가족은 미국을 향해 놀웨이의 오슬로를 떠났습니다. 열 한 살인 존은 북해를 거쳐 영국 중부 안개 낀 해안의 여행과 리버풀에서 묵은 삼일간의 관광과 대서양 횡단, 뉴욕에서부터 마침내 정주하게 된 유타주 로간까지의 길고 험한 여정을 일기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존은 가족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생계의 유지와 아들의 장래 교육비를 장만하기 위하여 재봉일과 그의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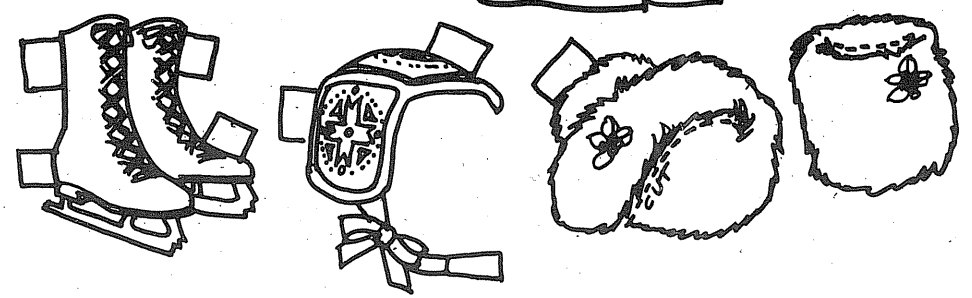
1921년 마흔 한 살의 나이에 존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유타 대학의 총장이었으며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대학의 총장도 역임했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그의 목적이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존 에이 윗소는 교회의 위인 중 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햇빛 비치는 땅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 한 가운데에는 배움에 대한 열렬한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책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뜻깊게 하루를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젊은이들을 질투에 찬 마음으로 우러러 봅니다.”

놀웨이의 트론드하임에서 존의 구두를 고쳐준 구두 수선공은 참으로 존의 어머니와 가족에게 값은 구두창보다 훨씬 가치있는 무엇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위대한 작가이며 교육가이며 지도자이며 친구인 존을 가져다 준 도구가 되었습니다. ○







놀웨이에서  
온  
커스틴



# 상

올리브 더블류 버트

제리 톰슨 그림

● 이른 가을, 맑게 개인 토요일이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태양이 거의 없는 겨울이 닥쳐옵니다. 밝고 쌀쌀한 가운데 오슬로를 내려 비치는 태양을 즐기면서 어린 아이들은 왁자지껄 웃음과 소란 속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룬드는 이들 즐거운 소년들 틈에 끼지 않았습니 다. 턱을 손에다 괴고 그는 난로 속에서 뿔뿔 타오르는 밝은 불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춤을 추듯이 방 안의 어두움을 밝게 비쳐 주었지만 마틴 얼굴의 우울한 표정을 밝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마틴의 여동생 소니아는 옛 놀웨이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랫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빠가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빠! 햇빛이 있을 때 나가서 놀아. 곧 어두어 질텐데. 가장 찬한 벼슬 잃은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 놀아.”

“네 말이 맞을런지도 모르지.” 라고 마틴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서서 누이 동생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친구를 잃지는 않았어. 친구가 나를 속였단 말이야! 내가 막 그애한테 갔다 왔거든. 무슨 일인지 알겠니? 안톤의 모형 지도가 내 것보다 훨씬 훌륭하단 말이야. 내가 원했던 스키를 그애가 상으로 탈 것이 분명해!”

“오빠. 안톤을 축하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빠의 지도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사 위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아세요?”라고 소니아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면 알지.” 라고 오빠는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심사원이라도 안톤에게 상을 주겠





어. 그의 지도는 내 것보다 훨씬 훌륭했거든.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

마틴은 자기의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만든 놀웨이의 모형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도였습니다. 매우 정성을 들여 그는 놀웨이와 핀란드 접경의 동북쪽 키르켄스 지역에서 남서쪽 해안 지대에 있는 슈타반가 및 오슬로를 거쳐 놀웨이와 스웨덴 사이의 경계를 잘 그렸습니다. 그는 밀가루 반죽으로 산의 모형을 만들었고 그위에 푸른 색을 칠했는데 이 지도는 여름의 놀웨이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쪽 지방의 눈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과 회색을 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협만을 다 나타낼 수가 없었으므로 큰 협만들—하르단거 협만, 소그네 협만 및 다른 협만 몇개—을 짙은 남색으로 칠했습니다. 낮은 구릉 지대의 색깔은 작은 검은 여름 동안 피는 꽃을 나타내는데 이때에는 해가 근 육 주동안 실제로 지지않을 때입니다.

다시 작품을 살펴보니 고쳐야 할 곳이 몇 곳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곳을 고쳤는데도 그의 지도는 친구 안톤 니센이 만든 것만큼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안톤은 세심한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 협만의 입구에다 조그만 바이킹 족의 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큰 도시—오슬로, 베르겐, 트론드하임 및 슈타반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어떤 도시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 날 마틴은 지도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지도와 함께 진열되었습니다.

마틴은 달아나려고 했으나 도망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곳에 앉아 슈벤드센 선생님이 시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수한 작품이 많았지만 특별히 우수한 작품이 두 개 있었습니다. 마틴 룬드의 지도는 매우 뛰어나서 많은 소년, 소녀와 선생님들이 책상 주위에 모였고 그들은 작품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마틴은 자기 지도와 안톤의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톤의 것이 최고야.” 하며 마틴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상을 타겠지.”

금요일 오후 시상식에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모였습니다.

우수상을 받을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은 하나 뿐이며 심사 위원들께서는 안톤 니센의 지도를 우수한 지도로 선정하셨습니다.” 라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안톤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 때 마틴도 따라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톤의 얼굴은 행복감에 넘쳐 흘렀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는 심사 위원과 슈벤드센 선생님과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으며 선생님께서 상으로 받은 스키를 들고 기뻐서 흔들었습니다.

마틴이 밖으로 나갔을 때 소니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등을 했으니깐 기뻐해야 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 꼴찌와 다를게 뭐야. 괜히 헛 수고만 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며 옆에 서있던 한 사람이 말을 해왔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격언을 알고 있겠지. 이번은 네가 실력을 발휘한 훌륭

한 기회였단다. 네가 우리 나라에 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나 생각해 보렴. 상을 타던 못 타던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렴.”

마틴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마틴의 생각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난 해랄드 라센이란 사람이란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단다. 나는 네 작품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너를 찾아 왔단다. 나는 칼 요한스케이트에서 상점을 하는데 며칠간 네 작품을 진열하고 싶구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조국의 아름다움을 잊은 사람들이 네가 만든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빌려 줄 수 있겠니?”

소니아의 눈은 빛났습니다. 마틴은 소니아와 그 신사를 번갈아 쳐다 보았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럼 가져다 전시하겠다. 훌륭한 작품을 만든 것을 축하하고 싶구나!”

그 사람이 떠난 후 마틴은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작품도 헛되지 않는지도가 그의 진열장에 걸린다면 말야…….”

“오빠 지도가 학교에 진열되는 것보다 칼 요한스케이트에서 전시되는 것이 더 좋지 않우! 라센 씨가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기억을 되살릴게 아니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마틴은 그의 어깨를 뺏습니다. 그의 턱은 끈게 정면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는 스키를 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떤 것 즉 최선을 다했다는 긍지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



## 엘리아와, 홍해와, 여러분

존 에이치 반덴버그  
관리감독

●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길이 있으며 이러한 길은 매우 유혹으로 가득찬 길이므로 여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이들 특히 교회의 신권 소유자는 영원한 목표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려는 유혹도 점점 증대해 갑니다.

우리는 잔인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계획을 찬양하는 원리나 새로운 운동에 대하여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한 운동은 종종 빈곤 퇴치나 평등과 기회 균등

과 같은 학술적인 자유나 가치있는 목적의 개발과 같은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 전에 그 내용을 조심성있게 검토합시다.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이 주어봅시다. 과연 누가 그러한 운동을 주관하는가? 그러한 원리의 최후의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고취할까 혹은 억누를까? 어떻게 이러한 원리는 복음의 진리와 비교되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결정의 측정기로서 복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하며 세상을 인도하는 불빛이 됩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지혜와 안전함을 말겼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해 줍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나 복지 계획이나 위대한 청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대에서처럼 현재도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 변하지 아니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는 생활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젊은이들이 현실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이 되었으며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바라십니다. 참된 말일성도는 잘못 인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로 알려진 현대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를 인도하고 권고하는데 주요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나 그 외의 많은 직책을 가진 헌신적인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표준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부끄러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근이십 여년간을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이때에는 “환영 모임”이나 “사교 모임”으로 알려진 캠페인 파티가 따르는 국가적인 대회나 실업인 대회 혹은 지방 대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호텔이나 공공 장소에서 열었으며 으레

히 술 좌석을 준비해 놓고는 이에 참석을 요청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압력을 이겨내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용기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자극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이며 내가 그러한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것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는 당신의 그러한 용기를 존경하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창조주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종종 추수의 법으로도 참고됩니다.

버나드 바루크는 그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란 자신을 교화시키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을 정복함으로써 폭군이나 노예를 교화시키지 않고 자기 교화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인류를 정복하려는 적은 사탄이며 이는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하려는 악하고 해로운 습관으로 몰아넣어, 우리가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우리의 참다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의 젊은이를 신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불렀으며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믿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는 젊은 자매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일 것

1. 바루크, 버나드 벤즈. 1870~1965. 미국의 제정가, 자선가, 판리, 대통령 고문

을 믿으셨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지구와 다른 세상의 창조된 것과 같은 권능입니다. 이는 홍해의 물을 반으로 갈라 놓은 바로 그 권능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을 인봉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권능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장님에게 광명을 주고 절름발이에게 다리를 고쳐주고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넣어 준 것과 같은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소유한 우리의 젊은이는 지상의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활 태도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내에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 8:31)

아론 신권은 청년 프로그램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올보다 큰 일을 준비하며 대신권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젊은이의 발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의 자녀를 이끄는 그들의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권을 받은 젊은이가 이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예외없이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신권이란 인격 형성을 뜻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로 하여금 합당한 개념과 가치를 갖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신권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킨다면 그는 영원한 원리로부터 오는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영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췌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36) 모든 말일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영생의 계획을 알고 기쁨과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알고 있는 의의 원칙과 복음에 의존하는 생활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

# 선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폴 에이치 던 장로와의 대화



뉴 잉글랜드 선교부를 관장하시다 최근에 돌아오신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던 장로는 선교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 대답  
해 주십니다.

**질문 :**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던 장로 :** 우선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합  
니다. 선교사는 구세주의 훈계에 따르  
기를 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한 성품이  
그의 생활속에 젖어 있다면 다른 많은  
요소는 쉽사리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  
하는 마음과 의로운 생각을 갖는 것은  
선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부에 가면 주시  
하나님과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간증을 갖는 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선  
교사는 개종한지 일, 이년 밖에 안된 사  
람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교회  
에서 지내온 기간의 길고 오랜이 훌륭  
한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간증이  
나 봉사 정신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  
지 않습니다.

**질문 :**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데  
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기금이 문제이고 또 어  
떤 사람은 부모의 반대도 있습니다. 이  
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  
까?

**던 장로 :** 물론 선교사 기금이 지나치  
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평양 일대의 섬  
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일인당 한 달

에 65~70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떤 곳에서는 125~130달러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선교 사업에 필요한 전액의 반이  
나 사분지 삼 정도의 자금은 따로 저축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  
장 일찍 성공하고 가장 열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선교 사  
업을 위해 준비할 사람인 것입니다. 나  
는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과 같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  
력해서 돈을 벌면 보다 더 유용하게 됩  
니다. 선교사도 이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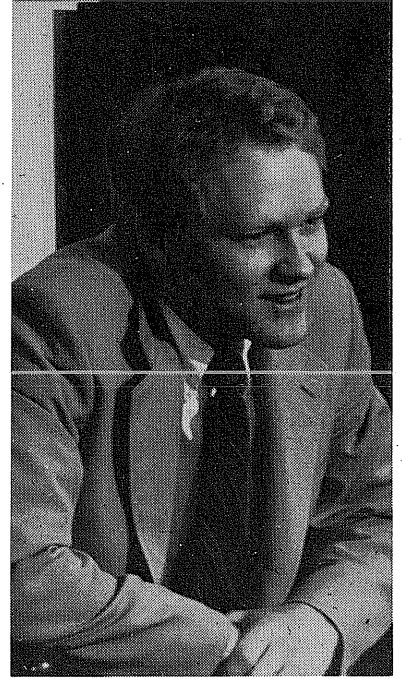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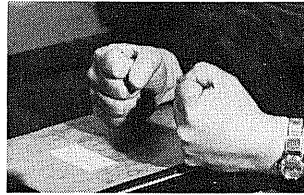
만일 기금이 문제가 된다면 감독이나  
장로 정원회나 철십인 정원회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금을 마련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금이 주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반대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부모도 선교사의 사명을 똑같이  
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툼이나 요구나 위협 등의 방법  
으로는 일이 성취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의 의도에 어긋나며, 가장 좋은 방  
법은 훌륭한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부모가 어떻게 생각  
하든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감정적인 갈등의

문제이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문제  
점만을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이란 개  
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친구나 특별히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은 젊은이들의 좋은 조언자가 됩니다.  
선교 사업을 반대하는 비물몬인 부모를  
대하거나 이러한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가정 복음 교사의 도움이 또  
한 이상적입니다.

선교부장은 부모의 지원없이 선교 사  
업에 헌신하는 젊은 남녀는 부모의 마  
음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들과 딸  
들은 더욱 부모에 가까워집니다. 선  
교 사업으로 가족이 분열되기 보다는  
함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얼마나 많은 비물몬이  
나 반물몬 혹은 비활동적인 물몬 부모  
가 그들 자녀의 선교 사업 때문에 복음  
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는가를 알았을 때입니다. 많은 비  
활동적이었던 부모님들이 나를 찾아와  
서 그들 가정을 훌륭하게 변화시켜준데  
대해 감사했습니다. 보통 그들은 신전  
에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질문 :** 여자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그들은 장로만큼 효



과적으로 일을 해 냈습니까?

**던 장로 :** 나는 여자 선교사들도 큰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삼 년동안 선교부를 관리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당국은 젊은 남자 선교사와 같은 정도로 자매들에게 선교사가 될 것을 공개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첫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부름은 결혼이며 그러한 것은 교회 역대 대관장님께서도 누차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자매가 선교 사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적합한가를 확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가 열 아홉살, 자매가 스물 한 살에 부름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매 선교사는 장로 못지 않게 능률적으로 봉사합니다. 나는 장로들이 자매 선교사를 능가하거나 자매 선교사들이 장로를 능가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편이 다른 한 편보다 나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 선교사는 장로들이 결코 갈 수 없는 가정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호별 방문도 장로보다 훨씬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들을 좀더 달리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매 선교사는 한 두 가지의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

을 집행하려면 장로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매 선교사는 장로보다도 더 참을성이 많고 이해심도 깊을 때가 있습니다. 자매 선교사는 또한 주님께 바치는 시간에 있어서 형제보다는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 선교사의 일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선교사들은 그렇게 팍찬 일과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던 장로 :** 지리나 문화적으로 내부 생활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선교부는 대개 같은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움직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우리 선교사는 아침 여섯 시에 기상을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심신을 단련시켜주며 하루의 좋은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전 여섯 시는 이러한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청소와 식사 및 그의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일곱 시 삼십 분에서 아홉 시 삼십 분까지의 약 두 시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혹은 합동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대개의 다른 선교부와 같이 동반자가 함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학을 복습합니다. 그들은 또한 토론도 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용판으로 가르치는 연습도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되풀이 한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창안해 내면서 호별 방문 때 사용할 말들을 익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창조적이 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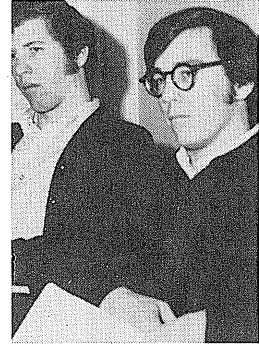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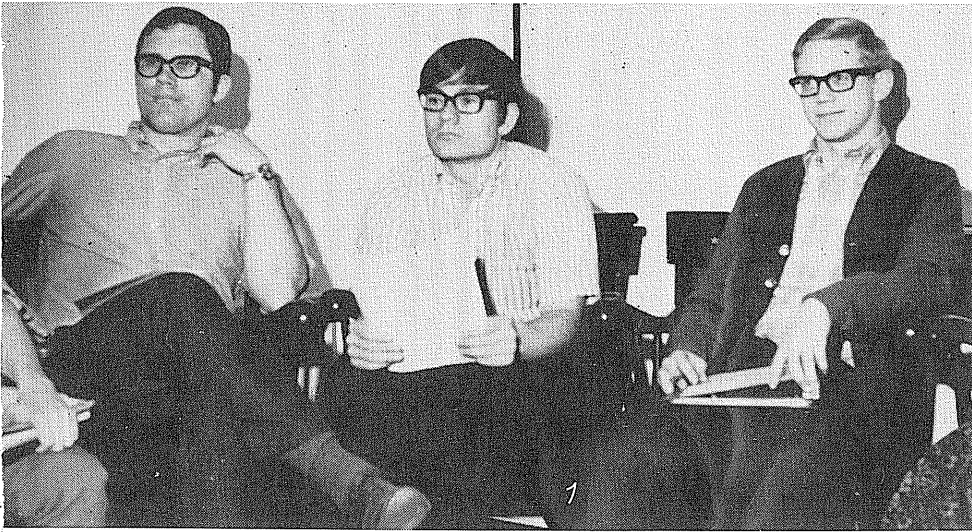
개인적인 연구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개조, 기이한 업적 등을 포함한 표준 경전의 숙달에 사용됩니다.

오전 아홉 시 삼십 분에 그들은 숙소를 떠나는데 우리는 그들이 제 시간에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선교사의 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를 절제있게 하며 조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웁니다. 개인적인 선교사의 불평이란 조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시간 반 동안은 구도자를 찾는 호별 방문이나 그의 다른 형태의 개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점심 시간 이후에는 호별 방문이나 구름 모임을 위한 다른 회원들과 접촉도 갖습니다. 선교사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다섯 시까지는 집에 돌아옵니다. 다른 선교부와 같이 우리도 모든 선교사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섯 시 반부터 아홉 시 반까지는 가장 유용한 복음 전도 시간입니다. 이때는 미리 약속된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





과 토론을 나누며 복음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가족 단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이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나오기를 권장하며 그래서 우리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의 공부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가족 단위로 복음 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시 반에는 물론 훌륭한 토론이 더 계속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선교사들은 집으로 돌아오며, 열 시 반까지는 취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교사가 열 시 반에서 다음 아침 여섯 시 까지 취침을 한다면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잠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잠을 많이 잔다면 그는 활기를 잃게 되며 게으름이나 피곤에 지치게 되며 감기를 도맡아 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대식을 본떠서가 아니라 이러한 규칙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백 사십여년 동안 경험해 왔으며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행착오의 단계를 필

선 넘어 섰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적용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장로님의 말씀은 선교사 시절의 2년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때이므로 편안한 생활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던 장로**: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 생활은 고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권 정원회나 모든 물론 가정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그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여기에서는 남녀 관계를 말함—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데이트를 하지 말고, 손을 잡지 말고, 키스를 하지 말고, 춤을 추지 말고, 수영을 하지 말고, 총을 쏘지 말고, 오토바이를 타지 말며 스키를 타지 말며, 스케이트를 타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용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선교사의 적들은, 이러한 것을 최대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자기에 불리한 두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생활 상태의 비정상적인

계약, 선교사를 유혹에 휩쓸릴만한 장소로 이끄는 적, 그가 함께 생활하도록 배워야 하는 제약된 자유 의지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갖고 있던 문제들 즉 도덕, 언어, 신성 모독, 속어, 복장, 몸무게, 불안감, 감상적인 문제점들은 선교사가 되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참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가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들의 약점은 더욱 약해 갈 것이며 장점은 그것대로 더욱 커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선교사업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며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의 약점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교회에 속해있는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해 자세히 알므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주님과과의 합당한 대화로서 해결되었습니다. 복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있었던 제약은 무엇이든지 선교사업 중에도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질문**: 현재 있는 선교사 프로그램의



발전과 이곳에서 계신 동안 직접 보신 변화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던 장로 :** 일반적인 원리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140년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스러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선 순위를 주셨습니다. 즉 먼저 요셉의 가문에 가고, 다음에 유대인과 다른 민족에 가라고 예언자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백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몇년 전에 교회는 지금 유명해진 여섯 가지 토론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직한 마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었으며 어느곳에서는 삼십 파에서 육십파, 심지어는 백 가지 이상의 공과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삼년 동안 가족 단위로 토론을 통한 우정 증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 정직을 갖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소개의 방법을 사람을 고르는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을 고른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거나 우리가 역시 같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토론법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훈련되고 성령에 충만한 선교사는 불과 몇 시간의 토론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가 혹은 단순히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여섯 차례의 토론 과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복음이란 평생의 연구 과제이며 그것을 다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활동적인 말일성도가 되지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활동성이란 간증과 비례합니다. 교회의 힘이란 개개 회원의 간증입니다. 여섯 가지의 토론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을 찾아 스스로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끔 무릎을 꿇고 간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만일 그가 주님으로부터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라는 내심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다

음 단계가 곧 진행됩니다. 즉 우리는 그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은 신원과 교회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운영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질문 :** 선교부장으로서는 느끼신 가장 훌륭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던 장로 :**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과 주님을 발견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그들의 지식과 간증을 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나의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감사 하면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귀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성실하게 지내온 바를 함께 나누므로서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모두 사실상 그의 참된 종이며 이러한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도록 평생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

● 지난 며칠동안 나의 생각은 다 음과 같은 위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종 [하 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고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 하는 연고니라.....”(교성 124 : 15)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 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타협과 정당화 와 비교와 자기 합리화에 기울며 사 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 로움을 사랑하던 것이 인정과 안 일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 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의 지름길이 의 로운 길과 멸망의 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 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

르는 길은 타협의 고속 도로를 달 리는 것이라고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 어머니가 대학에 다니 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대해 은근 히 만족하는 듯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 니다. “그 애는 공부는 잘 하지 않 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교에 서 종종있는 폭동에 가담하지는 않 아요.” 강도의 죄로 형무소에 갇 힌 죄수가 다른 죄수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녀석만큼 나쁘지는 않습니 다. 그는 이급 살인 죄로 여기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옷을 훔쳤 는데 자기는 모자를 훔쳤으므로 부 정의 도가 훨씬 약하다고 느끼는 줌도둑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에 담배 두갑 정도는

피우지만 습관성 약을 복용하지는 않는단 말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 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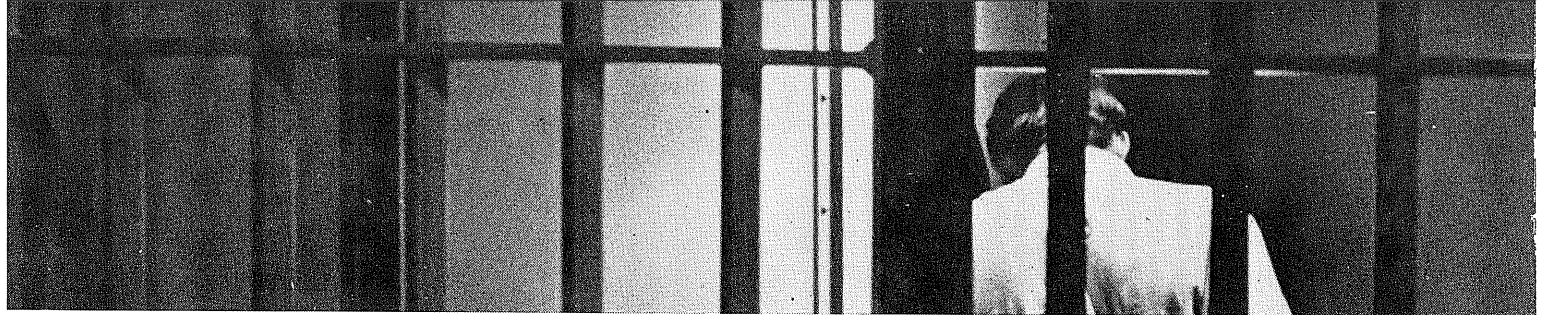
젊은이나 늙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고 시험을 받도록 요구되는 세상 의 압력은 눈에 뜨일 정도로 현저 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열두 세살의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습관성 약의 상용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놀 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 리의 젊은이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 유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악한 취미에 빠진 젊은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이란 여러분이 살 아가야 하는 시끄러운 세상을 멋있 게 도피할 수 있게 해준다.” “약은 의로운 사람의 벗이다.” “약은 여 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성숙하고 충

# 정의 사랑함

말빈 제이 애쉬튼

십이사도





만한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 “약은 인간의 대용품이다.”

나는 이토록 해로운 약의 복용은 악한 것임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번의 실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경건한 의로움이나 멸망의 사이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점점 믿고 있습니다.

약은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출발하기도 전에 떨어져 나가게 해줍니다. 약은 개개인의 가치관을 빼앗아 갑니다. 약에 젖은 젊은이는 저질의 저속한 문화 요소를 모방합니다.

약의 남용이나 다른 사회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증상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 내가 약을 먹어서는 안된단 말인가?”라고 스스로 혹은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잘못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알기를 원하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나는 도대체 자극적인 약이나 진정제를 복용해야 할까?”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불행하게도 악마와 같은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는가? 만일 우리가 부모나 친구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약은 해롭고 악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충고를 하면서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악습에 빠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약 자체는 불행의 큰 결과의 징후가 아니라 바로 그 결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

들이 그들의 현재의 생활을 도피하고 약을 남용하는 무서운 미지의 생활을 원하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고 사랑스럽고 활발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화학 약품에 빠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도피가 필요할 정도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마리후아나, 엘 에스 디, 헤로인 등의 약을 직면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피의 기구 속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친구로서 우리들은 아직도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신뢰와 사랑을 그들에게 줄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안정과 존경과 관심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 이상의 어떤 것 즉 사랑이 갖든 가정의 생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의로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행복한 가정 환경보다 더 바람직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스런 대인 관계가 확립된 가정의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면 “사람의 대용품”을 찾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일상 생활의 긴장을 화학적인 약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약에

관한 실제의 지식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그들이 애정의 결핍이나 버릇없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지나친 보호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어떤 성인들처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들런지도 모릅니다. 좀더 확고한 자세로 가족 생활의 참된 목표 위에서 훌륭한 씨를 심어 기쁨을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에는 젊은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가정에서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보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추구하는 것만이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곧고 평탄하다는 위대한 진리를 재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영원한 진보로 이끄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몇년 전 중부 유타 주에서 친구와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사자 사냥이 취미였습니다. 다른 여러 친구와 믿음직스런 말과 총과 잘 훈련된 개를 데리고 그는 사자의 굴이나 숨어 있을만한 나무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어느날 그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그는 다 자란 사냥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개로구나!”하고 나는 감탄을 했습니다. “저 놈을 없애버려야겠어. 더 이상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거든”하며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하고 나는 되 물었습니다.

“저 놈을 강아지 때부터 사자 굴을 찾도록 훈련을 시켰거든. 저 놈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삼일 간의 사냥을 떠났을 때 저 녀석은 사슴을 따라 헤맸고 그 다음에는 늑대를 쫓았고 마침내 토끼를 잡으러 돌아다니 좋은 시간을 모두 허탕치게 했던 말야. 저 녀석은 사자의 길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나야 사자를 잡으러 갔지 토끼를 잡으러 갔나. 그래 싹 값으로 팔아 치울 작정이야.”

우리는 약과 같은 옳지 못한 길을 택하므로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얼마나 방황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큰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작은 토끼를 찾아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약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회 는 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나 교회 역원들은 이러한 약을 방지하고 치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약 사용의 증가는 이미 전 세계에 퍼졌으며 하부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이러한 약에 빠진 사람들은 피상한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하며 그들을 특징지어 주는 행동 양식을 쫓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공격적이 아니고 받아 들여 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집회나 일반 우정 프로그램에서 그들을 거부하므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해로움만을 끼치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외면하고 소수의 잘못된 자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베푸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다 큰 악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놀라움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교회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약에 관한 지식을 훌륭히 주지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중한 운동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지를 은연 중에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약 문제와 싸우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훌륭한 사람이나 조직의 노력을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감독이나 다른 신권 지도자들은 약 상용자들로 하여금 치료와 회복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약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남용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복음 원칙에 관한 이해심있고 사랑이 깃든 재교육을 통해 그들의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목적이 있는 지도력을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원위치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로움을 택하고 그러한 길 위에 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약이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교

회란 주님의 손에 놓인 융통성있는 도구이므로 우리는 심각하나 더 큰 병의 징조에 불과한 문제로 우리의 영원하고 가장 효과적인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상한 행동의 표준은 언제나 의로움을 위한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악함이라도 행복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나 지옥이란 없으며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타협이나 편안함에 의지하는 것임을 믿도록 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실존하고 있으며 매우 영향력이 큼니다. 약을 상용하는 것도 그가 고안해 낸 도구의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의 교활함으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의 상용이나 우리의 표준을 타협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되며 모든 사탄의 술책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권고를 부탁한다면 그분은 표적과 함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리와 성약 9편 8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인 결정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축복은 위태롭게 될 것이며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벗어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활에 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능력에 의존한다면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탄은 아버지의 능력이 모든 의로운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엘마서 26장 12절에서 암몬은 그의 형제인 아론에게 안전한 생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음에,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회가 끝난 후 한 고민에 싸인 자매가 나를 찾

아와서 가정에서의 실패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반항적이고 고집이 있는 딸 때문에 고민에 싸인 이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서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포기할 때 가정에서의 실패가 싹튼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이나 현저한 진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해 포기했을 때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는 아리조나 주 그랜드 캐년 기슭에 있는 수파이란 곳에 사는 몇몇 레이먼인 친구를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었습니다. 캐년 기슭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도피 행각으로 그곳에 피해 온 히피 차림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약이나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기본적인 욕망이 이 지역이나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기존 세대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란 말을 나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그들이 사용한 정확한 말이 아니라 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립니다. 내가 한 젊은이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나는 현재 약의 남용에 빠져있는 우리의 다른 젊은 친구들에

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어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소유물과 함께 불과 서너 시간이면 이 그랜드 캐년을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이러한 약 복용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안전한 고속도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악한 약의 남용이나 그로 인한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젊은이나 당황해 하는 부모에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습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외로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가 가르치는 길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므로서 약과 같은 악으로부터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온갖 유혹과 싸우고 피하려는 우리의 젊은이를 함께 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 1:19~20) 나는 우리가 의로운 것을 사랑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결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십이사도 보조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내 마음 속에 간직했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원한 신전 결혼은 모든 교회 회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계명입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명령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교성 49 : 15~17)

결혼이란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녀를 기르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갖는 것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 내에서 영원한 신전 결혼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신권을 존중하며 그의 가정을 의로움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며 또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릅니다. 모든 가족이 활동적으로 교회의 일에 봉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신전에서 행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성도가 이해하는 바의 결혼은 영원토록 성임된 성약입니다. 영원한 승영예의 기초이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원한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구원의 교리[북크래프트, 1967], 2권 58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막 10 : 9) 그러므로 주님의 방식대로 행해진 결혼은 결코 이혼을 해서는



## 결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 성약을 때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증가하는 이혼율은 형제들의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회원간의 이혼율은 외부 사회의 이혼율보다 훨씬 낮고 신전 결혼을 한 사람의 이혼율은 일반 결혼을 한 사람의 이혼율보다 훨씬 낮지만 그래도 이혼율은 놀랄만 큼 높습니다.

이혼이란 흔히 당사자들이 복음대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구세주의 대답에서 보듯이 모세 시대에 허락된 이혼도 이와같은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 그러므로 오늘날 충만한 복음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세의 시대처럼 필요한 경우에 이혼이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복음의 표준이나 원칙을 그들 결혼의 기초로 삼는다면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이나 양편이 모두 복음의 표준을 소홀히 할 때 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결혼이란 성스러운 관계이며 교회의 훌륭한 회원은 그것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욕망이나 계획은 당사자가 모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멕케이 대관장님은 결혼 성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자기의 감상이나 즐거움을 위한 계약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소한 어려움이나 오해로 파탄을 초래하게 되며 어린 아

이들이라도 생긴 후라면 파탄이 던져주는 피해가 더욱 클 것입니다." (말일성도 가족 [데저렛 출판사, 1966] 402~403 페이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요인을 열거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의 불일치, 간음, 돈 문제, 육체적인 학대, 부정직, 복음대로 살지 못함, 불신앙, 신권의 모독, 신망을 저버림, 끊임없는 다툼, 냉담, 과음, 자제력이 없는 성격 등이 그러한 요인입니다.

성격의 불일치란 이혼의 경우에 너무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로 정당화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성격의 불일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헌신적이며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성격의 불일치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배우자에게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까? 만일 우리가 참되게 복음대로 산다면 불일치란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멕케이 대관장님은 성격의 불일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상대방의 사랑만을 받으려 하고 오해나 불화의 검은 구름이 생활의 방향을 뒤덮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르게 되는 암흑 속에서 상대방의 눈속에 있는 사랑의 불길은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맙니다. 말이나 행동이 잘못 전달되고 분노가 상처를 다시 악화시키며 한 때 결합된 마음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화 때문에 이혼이 생깁니

다." (복음의 이상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 469페이지.)

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육체적인 학대에 관해 듣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1951년 10월 대회에서 멕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끔 행동하는 여성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남편의 속을 상해주는 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남성도 육체적인 힘으로 학대를 하거나 저속하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틀림없이 것처럼 잔인한 남성도 있으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저속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이상, 476 페이지)

무관심이나 대화의 부족이나 애정의 결여는 흔히 결혼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헤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님은 신권 지도자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나나 나의 아내 사이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는 우리가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수많은 일에서 우리의 애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서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야, 1970년 12월 12일, 6페이지.)

순결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구세주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권 소유자나 신전 추천서를 받고 신전 결



혼을 할만큼 합당하다고 생각된 자매가 종종 간음이나 부정이나 그밖의 성적인 죄를 범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여성이 가정을 떠나 남성과 함께 일을 하는 오늘날 처음에는 순진한 사립으로 출발한 남녀 관계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탄을 하고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혼 성약에 충실할 것을 주님의 전당에서 성스럽게 맹서한 사람은, 그가 미소로서 그를 유혹하는 미모의 여성에게 반해서 부인이나 가족을 버린다면 자기가 맺은 성약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법의 허술한 해석으로 그에게 이혼장이 주어진다 해도 그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두번째의 결혼을 위한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이상, 473페이지.)

이혼의 이유가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통 자녀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겨줍니다. 흔히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을 준비해가는 기본적인 필요를 빼앗기고 맙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모든 어린 아이는 (1) 존경받는 이름 (2) 안정감 (3) 발전의 기회와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이혼으로서 빼앗겨지고 맙니다.

컬리모어 자매와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전에 갔을 때 조지 에 이치 브림홀 총장(브리검 영 대학)은 그의 사무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지시 사항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에덴 동산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줄 네 가지 샘은 끊

임없는 신뢰, 끊임없는 권고, 끊임없는 타협, 끊임없는 구애입니다.”

어떠한 결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신뢰 즉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서 출발한 신뢰는 결코 상대방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며 믿음이란 상대방의 결백을 확신하는 가운데 확립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권고하며 함께 결정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 가족을 포함하는 권고는 훌륭한 가족 관계를 이룩하여 줍니다.

행해져야 할 모든 일에 서로를 권고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줍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는 타협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타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남의 미덕을 인정하여 이를 잘 조종해 간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와터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명예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질투가 생기고 재앙이 닥치고 사랑이 종식되고 인생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모든 일에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리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로움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구애에 관해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씨앗은

젊었을 때 뿌려집니다. 행복은 결혼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어서 구애하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북크래프트사, 1957], 49페이지.)

구애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친절할 말이나 사려깊은 행동이나 끊임없는 배려로서 우리의 구애를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치발드 에프 베넷은 가족의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인용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이 자기들의 사랑의 대화가 끝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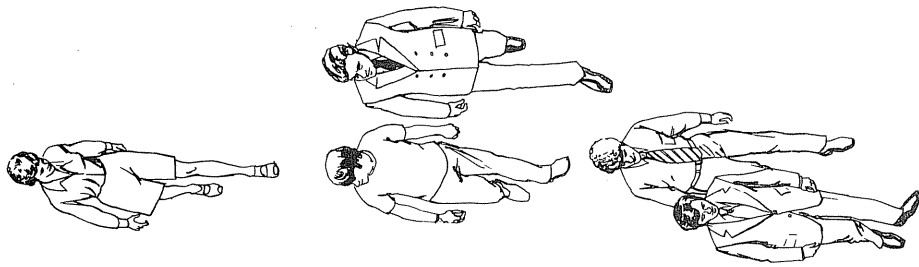
마땅히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은 결혼식이 영원한 반려의 여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짐을 함께하는 동안 서로 감사의 대화를 나누고, 연애를 하던 시절보다도 더 따뜻하고 사려깊은 행동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결혼으로 이끌어준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감사하오, 용서하오” 등의 사려깊은 이야기를 결혼한 날부터 써야 할 것입니다. 결혼 반지란 남편에게 잔인하거나 무분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부인에게 게으르거나 성을 잘 내거나 불쾌해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일성도 가족, 236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결혼 성약을 성스럽게 지키고 그에 따라 생활하여 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1. 와터손, 헨리: 미국 신문인 점 정치가 1940~1921.

#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몇주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번잡한 공황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흔히 당하는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우리는 여기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문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덧붙여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나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몇해가 지나고—아직 우리가 젊다해도 과거보다는 늙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벌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쫓다보니 금년도 사분의 일이 흘러갔는데 문득 존 러스킨이 꾸었다는 꿈이 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즐길만한 오락 시설이 갖추어진 어린 아이의 뜰에 간 꿈을 꾸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오후를 마냥 즐길 수 있게 방이나 마당에 내버려 두어졌습니다. 훌륭한 음악, 흥미로운 책, 진수성찬 등 어린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몇몇 아이들은 의자에 박아 놓은 장식 못을 뽑으려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장식용 못을 빼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으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른 아이의 것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정말로 실질적이고 민감한 아이들은 그날 오후에는 꼭 장식 못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이 하나 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못을 더 갖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가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너무 소란을 피워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어린 아이들의 꿈이란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지. 그것은 어른들만이 하는 것일거야’ 하며 혼자 생각했습니다.”<sup>1</sup> 나는 러스킨이 꾸었던 그러한 꿈을 꾸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이러한 일을 추구하고 간구하였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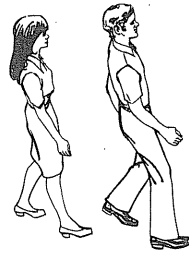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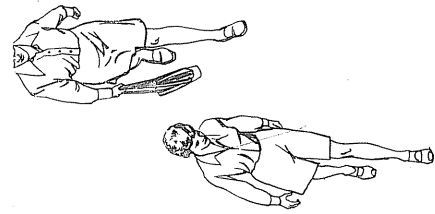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연로하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달 전에 나는 나의 친했던 옛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이 세상적인 일에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할아버지는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결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

1. 존 러스킨: 영국의 문예 평론가 겸 작가 1819~1900

## 리처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앙과 용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대의 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손자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에서 이러한 말을 해 준다면 얼마나 축복 받고 만족스러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있었던 곳이나 세계적으로 수 백만의 사람들이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울 특권을 누리보지 못한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인 기회를 잃거나 무시해 버리는 다른 어떤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점 고도의 훈련과 능력과 기술을 요하는 세상에서 과연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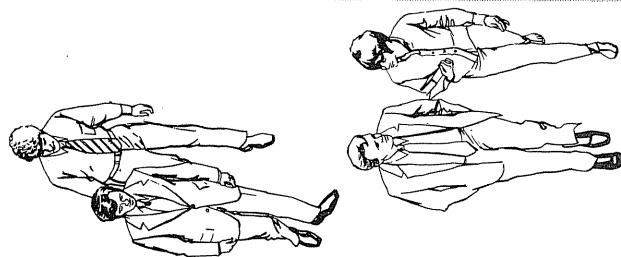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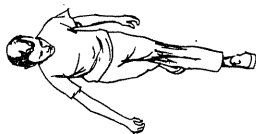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메일은 영원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간청합니다. 조지 엘리오트<sup>2</sup>는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인생의 법칙은 모두 같은 것이며 항상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법칙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2 조지 엘리오트: 메리 안 이반스의 편명, 영국 소설가, 1819~1880 “아보스 마튼의 성취 생활의 일면”



내일 아침이면 떠오릅니다. 이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거나 실제적이며 필수적이며 행복, 건강, 화평을 가져다 주며 정직, 도덕성, 청결, 우수성 및 그의 모든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을 소홀히 버려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즉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이스러운 신체의 기능과 함께 이러한 마음이나 육신은 지상에 있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해치고, 신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이런 것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즉 육체를 망치고 정신을 시들게 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사악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어느 경우에라도 인간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법칙에서 이탈해서 오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형벌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형벌과 내심의 고뇌라는 무서운 형벌도 있습니다. *쥬베날*<sup>3</sup>이란 사람은

3. 쥬베날, 메시머스 유니우스 쥬베나리스—로마의 해학자. 60~140: 해학 13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란 자기 양심을 속여서 자기의 죄를 무죄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나 모든 요구는 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진보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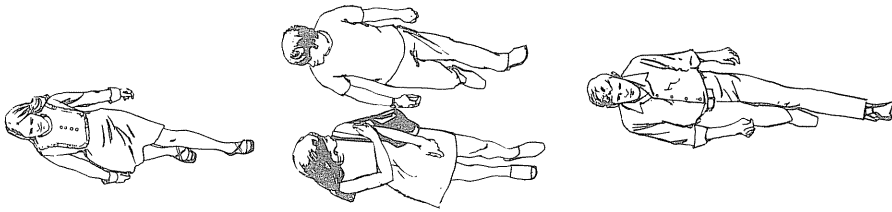
물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정신의 타락이나 저속한 문학 잡지의 애독자나 작자 등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의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악하고 천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지 않고 점점 사악하고 해독스러운 면으로 커가는 악을 퇴치하기에 유익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순진성과 정직성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공해를 추방하자는 외침에 더불어 마음과 태도와 도덕의 공해를 몰아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해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마음이나 영혼의 공해에 대한 관심보다 더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즉 예방의 힘과 회개의 힘이 그것입니다.

왜 인생의 법칙을 거스리겠습니까? 왜 불행이나 질병 속에 빠지겠습니까? 왜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생활하여 방지할 수 있는 상심, 낭비, 후회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도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실 비이 데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명에 대해 자신을 깨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sup>4</sup> 우리는 예방의 힘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가르칩시다. 마야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로운 일이 아니면 행하지 말고 진실한 일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sup>5</sup>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방 조처에 실패했다면(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회개의 힘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오의 무거운 짐은 결코 가볍게 생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리 부대장관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가장 무거운 짐이란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뇌의 짐을 지니고 있는 많은 젊고 늙은 사람들이 행동은 달리 했으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행복스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진실히 행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확신을 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주신 회개의 원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에 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4. 세실 브라운트 데밀 : 영화 제작자 및 작가 1881~1959 “브리검 영 대학 졸업식 기념사” 1957.

5. 마야커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로마 황제, 121~180 : 명상록, 12권 17편 68행.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 : 42, 43.)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구세주의 지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실제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곳에도 달하도록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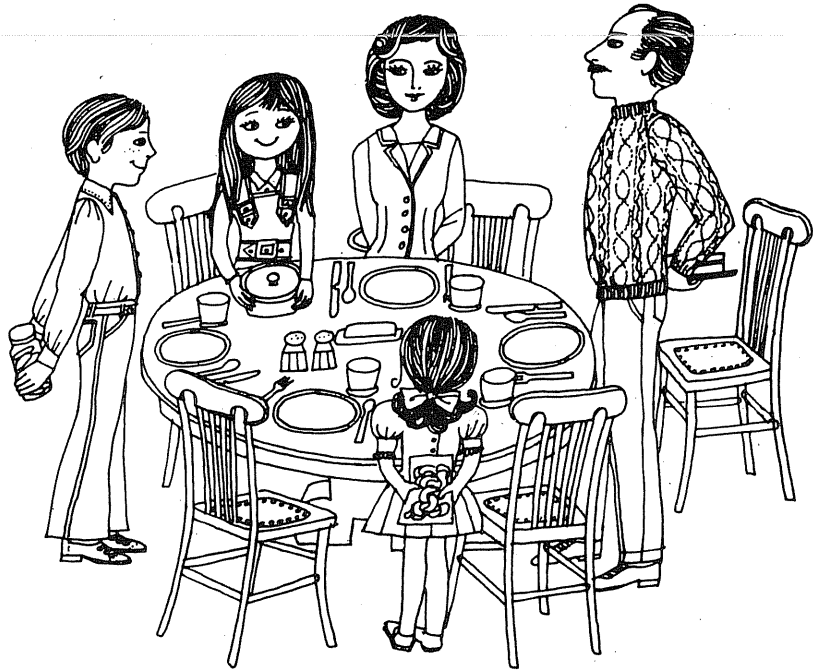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의 예언자를 통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 말씀대로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많은 훌륭한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에 합당하도록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방편을 보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구세주를 보내 주셨으며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러한 그의 목적에 우리가 기꺼이 따른다면 구원을 받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자비하심과 축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깜짝 놀랄 저녁 식탁

매리 엘렌 폴리



● 가족이 함께 모이기가 어려울 때는 각 가족에게 시간을 적은 종이를 접어서 주어 미리 약속을 한다. 길에는 쉬! 라고 크게 써 놓는다. 속에는 다음과 같은 초청 내용을 적는다.

“월요일 저녁 존스 씨 맥에서 갖는 깜짝 놀랄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후 다섯 시에 안방에서 만납시다.

가족이 안방에 모이면 각자에게 오십 센트씩 주는데 가정 예산에 따라 이 돈을 적당히 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잡화상이나 큰 시장으로 데려간다. 각자가 정확하게 오십 센트씩을 사용하게 하며 이로서 자기가 훌륭한 저녁상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원하는 음식을 준비한다. 각자가 산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모두가 식사 때 깜짝 놀랄만하게 준비 한다. 바쁜 식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각자가 자기의 돈을 다 썼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훌륭한 식단을 차린다. (이것은 호기심

을 북돋기 위해 오후 일찍 할 수도 있다.)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직접 식탁 위에 갖다 놓는다. 이것은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동시에 갖다 놓도록 한다. 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을 위해서 한 부엌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한다.

식사는 후식만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얻는 즐거움이 모자라는 영양을 메꾸어 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상하여 어머니는 미리 샐러드나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시장을 가는 대신 부모는 각 자녀가 식품 저장고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종류를 하나만 골라서 식사를 준비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깜짝 놀랄 식단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족은 틀림없이 음식의 독창성을 즐기게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중 가장 훌륭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

# 하나가 됩시다

선교부장 부라운

● 지난 11월에 있었던 지방 대회를 참석하는 동안 저는 우리 한국 선교부가 단결하고 형제애를 발휘해야 하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단결했을 때 그들은 번창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한 후 근 이백년간 그곳 백성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물론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것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으니,

“도적이나 살인자가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혹은 다른 족속의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한 덩어리가 되었더라.

“주가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날날이 축복하시니 저들의 복됨이 어떠하겠느냐……”  
(니사 1 : 15~18.)

만일 우리가 시기나 분쟁이나 음행, 거짓말 등 온갖 음란한 것을 피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교부장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교회 회원들 간에 참된 사랑과 우정을 나눕시다.

대부분의 지부는 새로운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부 건축 기금이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번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단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가 됩시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릅시다. 특히 우리는 십일조의 법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한다면 하나의 교회나 혹은 개인으로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회원이 단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발전하고 번창하며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국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할 용기를 갖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며 특히 홀륭하신 한국 성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한 몸이 되어서 일합시다. ○



프레스톤 시장 근처



벨파스트에서의 가두 전도



브릭햄 항구